

# 진도군,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 "원도심 상권 활성화"



### 5년간 60억 사업비 투입...상권환경개선·활성화·역량 구축 등 "군과 상인회·지역 전문가 협력해 도심 옛 명성 되찾고 경쟁력 ↑"

진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 후 5년에 걸쳐 6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군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인 진도읍 남문로 아리단길 일원 상가를 대상으로 상권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역량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상권환경개선은 거리 정비와 기반

공사, 상설시장 편의시설 개선 등에 지원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 브랜딩, 프리마켓 운영, 액집포 육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역량사업은 상인 조직 운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지역 주민과 상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 활성화 협의체와 상권 활성화 재단을 운영, 지역 상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연계사업으로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국토교통부) ▲아리랑 굿거리 조성사업(전라남도) 등을 함께 추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진도군과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이 협력해 진도읍 도심 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겠다"며 "현재 추진중인 진도읍의 다양한 개발 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활기가 넘치고 특색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완도군, 해풍 맞고 자라 맛·향 일품 '유자' 올해 3100톤 수확

###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 3배 많아 감기 예방 도움

지금 완도에서는 황금빛 유자를 수확하기 위한 손길로 분주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달 26일 유자 수확이 한창인 고금면 청학리 유자 농장을 방문하여 유자 작황 및 수확 상황을 살

피고 판로 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완도 유자는 197ha에서 3,100톤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보다는 5% 이상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3배나 많아 감기 예방에 좋다.

유자 속 리모넨 성분은 목의 염증과 기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구연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염작용을 해 구강 염증으로 인한 구취 제거와 껌질에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황금빛 완도 유자는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환경에서 풍부한 일조량,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더불어 해풍



을 맞고 자라 과피가 두껍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  
새콤달콤한 유자는 주로 유자차로

먹었으나 요즘은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 강진군 "코로나 시대 '식사 예절' 준수합시다"

### 관내 음식점에 포스터 부착

강진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28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식사 예절' 포스터를 부착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수도권, 광주를 비롯 전남 동부권에서 중·서부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호남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



란주점, 음식점, 카페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n차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문과 SM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였다.

이번에 부착한 포스터에는 △마주보지 않고 대각선 앉기 △식사 중 대화 안하기 △식사 후 마스크 상시 착용 △국자 이용 덜어먹기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점 기본 수칙으로 이와 함께 4㎡당 1명의 이용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강조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스스로 예방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4(four)메카' 이어 '4(four)시티' 지역 발전 전략

### "군민 삶의 질 향상"

장흥군이 '4(four)메카'의 지역 성장 비전에 더해 최근 '4(four)시티'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놨다. '4(four)메카' 장흥은 스포츠, 문림의향, 안전, 친환경을 필두로 군민행복 시대를 이끌겠다는 장흥군의 야심찬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노인공경도시, 수열그린도시를 내용으로 한 '4(four)시티' 장흥을 구축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4(four)시티 장흥'의 첫 단추는 '여성친화도시' 기반 확보다. 장흥군은 2011년 전국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8년을 재지정 받았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 취·창업교실, 여성이 살기좋은 장흥 만들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육성이다. 장흥군은 지난 10월 전라남도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장흥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놀이와 여가가 있는 아동 문화공간 확보,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안전과 보호, 교육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노인공경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군은 어른이 존경받고 살고 싶어 하는 장흥을 위해 노인회관 복지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그린도시'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정남진 수열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해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해남 송지면 물 걱정 끝"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 광역상수도 공급 상수관로 8347m 연결...내년말 완공 예정

해남군이 상수 가뭄피해 지역인 송지면 일원에 대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비 14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2021년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북평면 남창리에서 송지면 소죽리까지 상수관로 8,347m를 매설, 송지 지방상수도 수원 부족 시 소죽 배수지에 광역 상수도(장흥담)를 공급해 식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인근 8개 마을인 치소, 서정, 신기, 해

원, 석수, 신흥, 장흥, 마봉에도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하게 된다.  
송지면은 지난 2017년 가뭄으로 인한 수원지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는 상황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 부족 시 광역 상수도를 곧바로 공급해 주민들의 식수난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